사라진 선거구…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

광주·전남 조정 거론 선거구 예비후보들 선거전략 막막

정의화 의장 중재안 합의 실패…정치신인들 "직무유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지역구 의석 수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선거구 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광주와 전남 일부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선관위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에 한 해 오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인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생활권이나 주민 정서가 전혀 다른 선거구가 합쳐질 경우 선거운동 전략을 짜기 조차 막막하기 때문이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운동 기간까지 짧아지면서 이름이나 얼굴조차 알릴 기회가 많지 않게 되는 정치 신인들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지자들은 전통시장 방문을 비롯, 동네 구석 구석을 돌며 주민들과의 스킨십만 강화하고 있을 뿐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없어져 불안정하긴 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만큼 얼굴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선거구 증발사태는 19대 국회의 무능과 무법·무염치의 직무유기다.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은 답답해 하는데, 현역의원들은 묵인 방조하고 있어 이를 민심이 엄정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 54석) 유지라는 선거구 획정의 대전제를 제시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물론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이 기준을 토대로 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지만, 만에 하나 정 의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면 광주시의 의석은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구 하한기준에 미달하는 동구가 인근 북구 갑과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지역구를 분점한 2명의 현역 의원이 피할 수 없는 진검 승부를 벌여야 한다.

전남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인구 하한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장흥·강진·영암 선거구가 분산돼 인근 선거구와 통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곡성 선거구의 경우도 순천 선거구 1곳으로 하고, 곡성이 분리돼 인근 선거구와 합쳐지는 등 선거 판도가 예측불허로 변할 수 있어 정치신인들은 대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행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더라도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고, 설령 첫 관문을 넘어서더라도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에도 총선이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들, 특히 원외 후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치 신인들은 현역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정치 신인 견제를 위해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지연을 즐기거나, 적어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구획정 답답하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2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내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임내현 "여론조사 못믿겠다" 수사 의뢰

"다른 조사와 격차 커 편향성 의심"…첫 이의 신청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교체 희망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 삼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너무 커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및 경찰 조사의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임내현(63·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해달라고 중앙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고, 광주 북부경찰서에도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은 "통상적인 오차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조사 대상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선거법 제108조 공정 의무 준수 및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저촉 여부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 및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지난달 광주 시민 2400명을 대상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교체 희망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임 의원 지역구에서 '교체되기를 바란다'는 응답률이 70.9%에 달해 광주에서 가장 높았다. '한번 더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은 9.5%에 그쳤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다른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한 일부 오류가 생기지만 이의신청 대상이 된 조사는 신뢰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데 불만을 품고 흠집내기를 하려고 편파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의심했다.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탈당한 김동철·권은희 의원의 부정여론도 타 여론조사 결과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의 약칭으로 '더민주'를, 영문명으로는 'The Minjoo Party of Korea'를 확정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약칭 및 영문명, 도메인 확정의 건'을 의결했다.

애초 '더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유사 당명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더민주당'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에 이어 약칭까지 접수하려고 하자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표창원 전 교수와 충장로서 프리허그 행사

이형석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이형석 광주시 북구 을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광장에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안아주세요'라는 주제로 프리허그 행사를 열었다.

이 후보는 프리허그 행사 직후 인근 카페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청취한 뒤 광주의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표 전 교수는 "광주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광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힘들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묵묵히 국민을 위해 나아간다면 진심이 통하고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새해 메시지를 전했다.

주민 애로사항 청취 '골목길 경청투어'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

김명진 광주시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일 주민들을 직접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는 '골목길 경청투어'를 19일째 이어갔다.

김 후보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새해 연휴 3일간 선거구인 무등시장·봉선시장·백운시장 등지에서 상인들을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개선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주고 받았다.

김 후보는 "전통시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파악하는 척도이자 민심의 현주소를 알수 있는 바로비터"라며 "대형유통할인만트에 견줘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일 동구청장 출마예정자 예비후보 등록

임영일 동구청장 출마예정자는 1일 예비후보 등록, 3일 선거사무소 개소에 이어 오는 5일 공식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4·13 동구청장 재선거 공식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그는 지난 1년여 간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조성과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출마선언 직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인데, 과거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선거활동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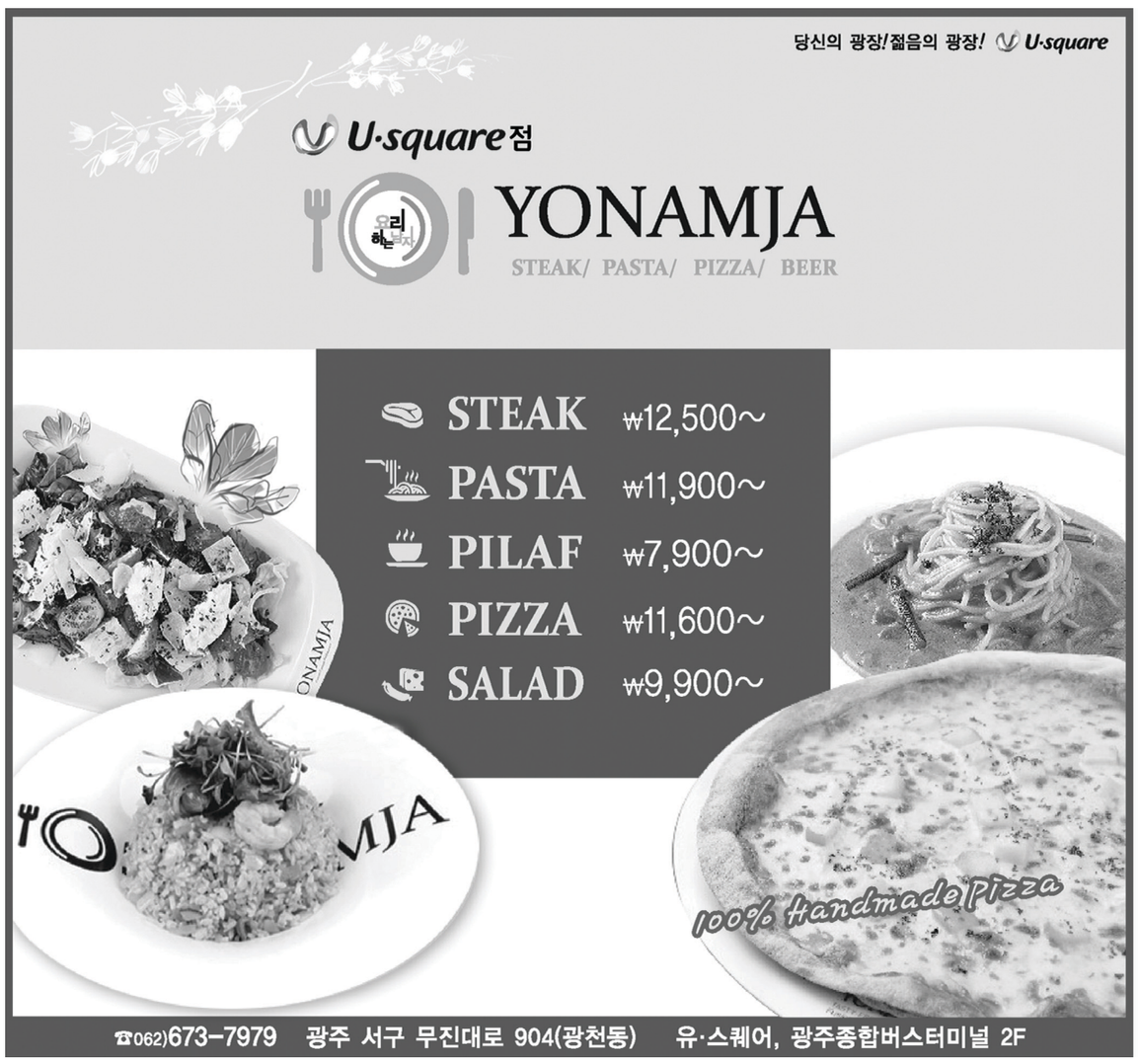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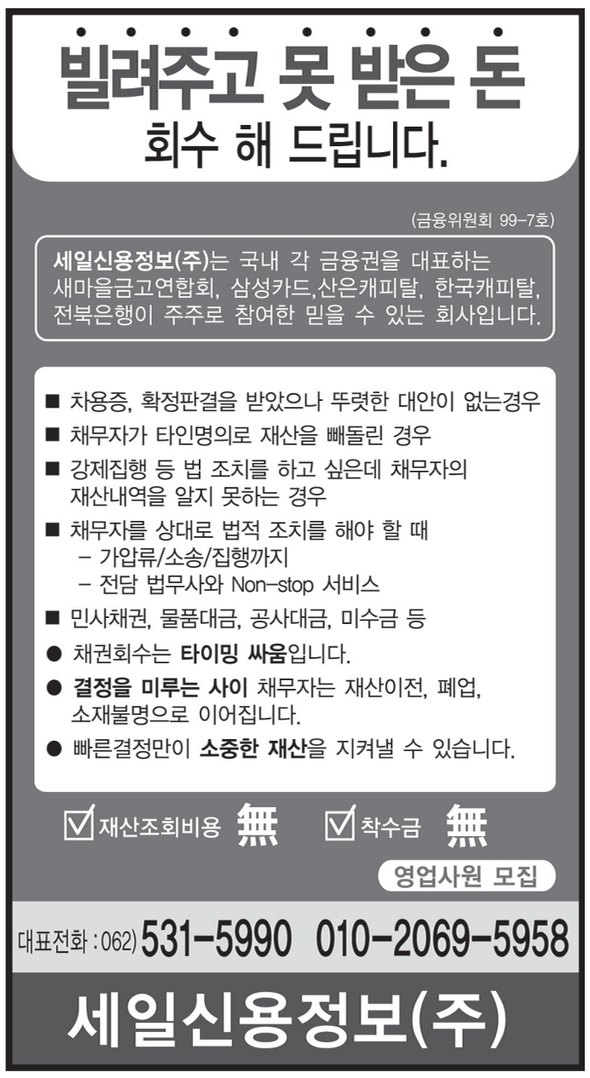
박준영 '신민당' 광주시·전남도당 창당대회

6일 DJ센터서 비전 선포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추진하는 가칭 '신민당' 광주시·전남도당이 오는 6일 창당대회를 연다.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광주시·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준영 중앙당 대표, 김경천·류근찬 공동 부대표, 채일병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장, 김종식 전남도당 창당준비위원장, 전·현직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민당은 시·도당 창당대회에서 당의 기본 정책과 방향 등을 밝힌다. 이어 같은 달 17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서 야권 신당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